

홈스펀과 트위드

홈스펀(homespun)은 가정에서 실을 만든 모사를 사용하여 수직한 방모직물이다. 오늘날에는 홈스펀이라 함은 방모의 평직물로 만든 두툼한 옷감을 가리킨다. 트위드(tweed)도 옛날에는 수방한 모사로 수직한 것이었다. 트위드는 거칠고 성근 능직물을 중심으로 평직물도 포함된 대부분의 방모직물이었다. 홈스펀도 트위드도 원산지는 영국이며, 그곳의 양털을 원료로 하는 것이 근본이다. 따라서 영국 양모제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체비오네트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힐의 양털로 만든 것이다. 웨트랜드는 스코틀랜드 근해에 산재하고 있는 웨트랜드 여러 섬과 스코틀랜드 북부의 양털을 사용한 것이다. 이것만은 소모사이다.

해리스 트위드도 스코틀랜드 근해의 해리스 섬에서 제직된 트위드이다. 각 양각색의 넵이 들어 있는 도니골은 아일랜드의 도니골 지방에서 생산하는 아이리시 양모로 만들어진다.

오늘날에는 홈스펀도 트위드도 그 대부분은 기계로 방직한 방직사를 사용하여 기계로 짜고 있기 때문에 수방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직 옷감은 귀하게 되었고, 수직이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한다.

현재 기계로 짠 직물은 60인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요즈음 우리 나라에

서는 특수한 직물을 제외하고는 직기의 고성능화로 인하여 모두 직기폭이 넓어지게 되어 36인치, 45인치조차도 드물게 생산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복지의 일 예를 든다면, 과거로부터 한복용 견직물은 보통 23인치 전후였다. 이것을 모방하여 폴리에스터 모노필라멘트사를 사용하여 유사하게 제직하는데, 폭을 50인치 정도로 하되 그 한가운데 번사 장치를 넣어 두 폭으로 제직 설계하여 46~47인치로 염색 가공한 후, 그 중간을 둘로 나누어 폭을 23인치로 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러므로 폭만으로 수직과 구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 트위드(tweed) : 방모직물(紡毛織物)의 한 종류, 비교적 굵은 양모를 사용하여 평직(平織) 또는 능직(綾織)으로 직물을 짠 다음, 축융(縮絨)·기모(起毛) 등의 가공을 하여 표면에 거친 감촉을 나타낸 모직물을 말한다. 이 명칭은 원래 스코틀랜드 지방의 트위드 강변에서 제직한 수방(手紡)의 방모직이라는 설과 트웰(tweel), 즉 능직에서 변화된 명칭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원래는 체비엇(cheviot)급의 양모로 제직한 능직의 모직물로서, 18세기 중반까지 양모의 털깎기에서 제직에 이르기까지 전부 가내공업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다른 양모도 사용하고 또 순모도 아닌 인조섬유를 혼방한 것도 있으며, 감촉도 여러 가지 것이 있다. 직물의 조직은 평직·능직·헤링본(herring bone)·변화조직 등이 있다. 원모염색·실 염색의 것이 많으며, 2~3색을 혼합한

실을 사용하기도 한다. 원래는 방모사를 사용하나 소모사(梳毛絲)를 사용하기도 한다. 용도는 코트·슈트·드레스 또는 스포츠복 등으로 쓰인다. 여러 종류의 트위드가 있다.

① 스코치 트위드(Scotch tweed) : 보통 트위드라고도 불리며, 가장 기본적인 트위드로서 경사·위사 중 한쪽을 백색 방모사를 사용하고 다른 쪽을 검은색 또는 다른 색으로 모염(毛染)을 하여 만든 방모사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트위드를 스코치라고 통칭하는 수도 있다.

② 해리스 트위드(Harris tweed) : 스코틀랜드 북부의 아우터 해브리디스 제도에서 생산되는 트위드로서 가장 값비싼 종류이다. 이 직물은 수직(手織)으로 짠 것이며, 실은 수방으로 만든 것과 기계방적으로 만든 것이 있으며, 두꺼운 방모직으로 아담하고 우아한 정취가 풍부한 고급 트위드이다. 이 명칭은 트위드 협회의 등록상표로 되어 있다.

③ 아이리시 트위드(Irish tweed) : 아일랜드의 농가에서 부업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경사에 백사를 쓰고, 위사는 짙은 남색, 짙은 갈색, 검정색 또는 쥐색 등의 색사를 사용한다. 이 밖에 색스니 트위드(Saxony tweed), 흡색 트위드(hop sack tweed)·도니골 트위드·요크셔 트위드 등이 있다.